



2018 경제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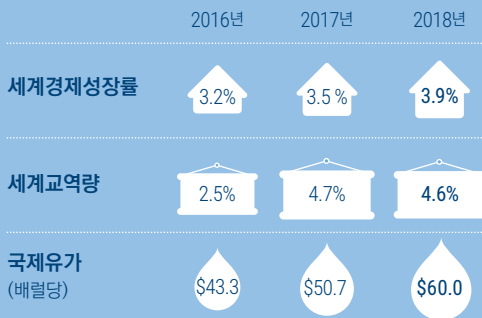
“ 2018년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동반 경기회복세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3.0%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과 민간소비가 세계수입수요 확대와 가계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위축되면서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축소되나, 여전히 GDP대비 4%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공급측요인이 완화되며 지난해 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2018년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경제환경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변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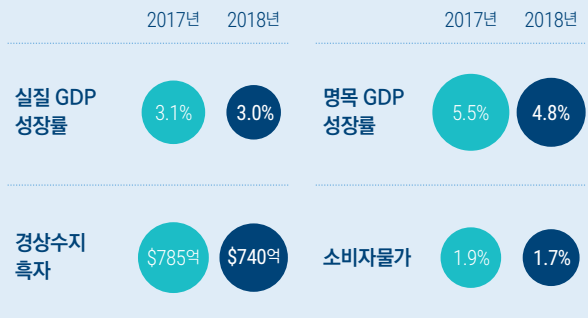


「2018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 내수, 수출,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고용, 금리, 환율 등으로 구성

세계경제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018 국내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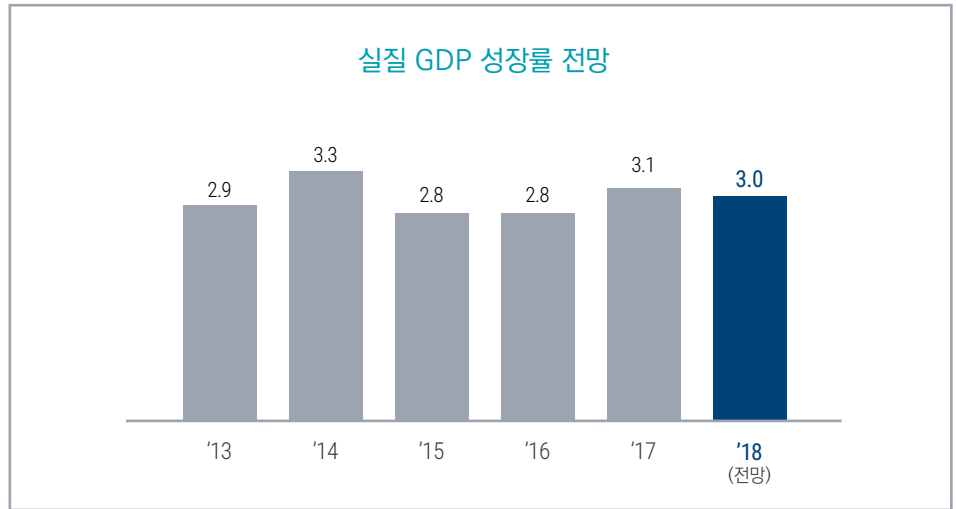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Bloomberg

주: 2017년 명목 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I.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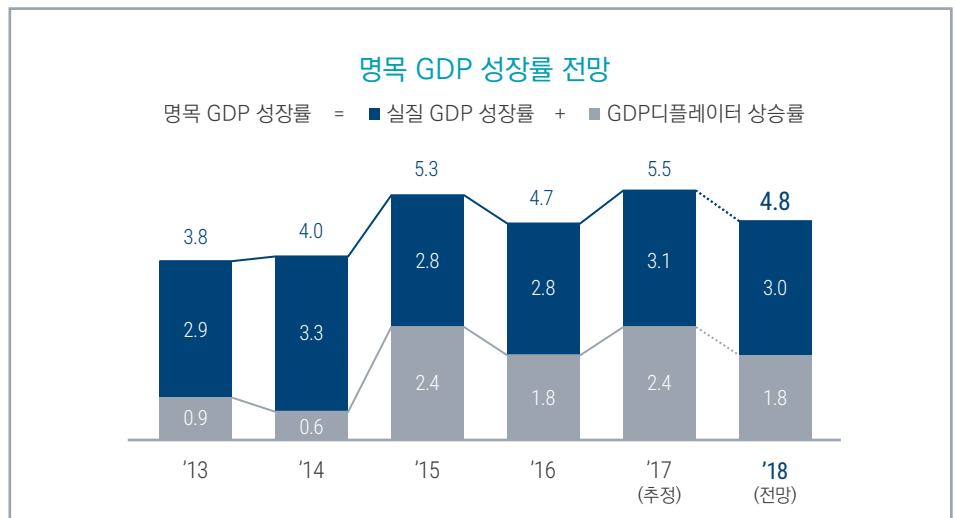
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18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수출호조로 지난해에 이어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며 3.0% 성장할 전망
대외 수출이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른 세계수입수요 확대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소비가 가계 소득여건과 심리 개선, 정부 경제정책 등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전망



2.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원화가치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5.5% 추정) 연간 4.8%를 기록할 전망



주: 2017년 명목 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GDP디플레이터는 실제적인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사후에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반올림으로 인해 계산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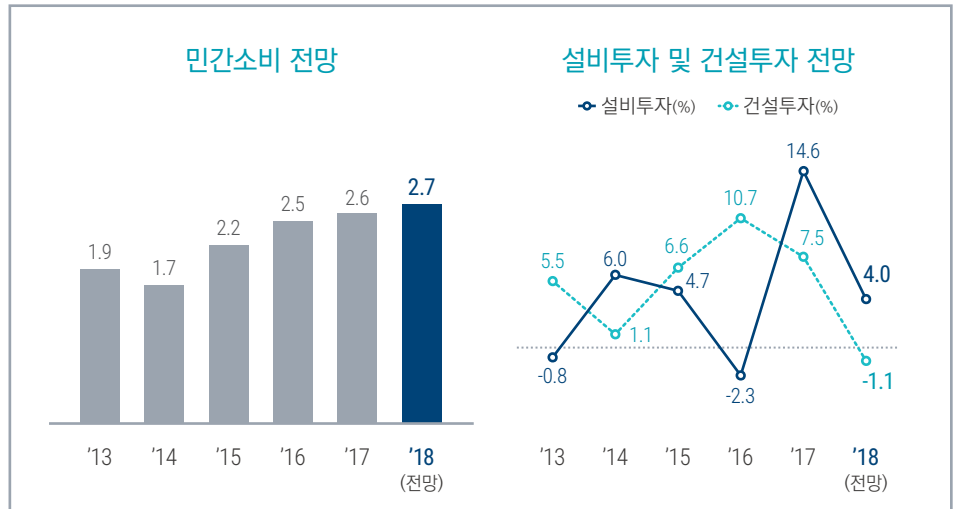
II. 내수 및 수출 전망

1. 민간소비와 투자

2018년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실질구매력이 확대되면서 2.7% 성장할 전망

설비투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 투자수요로 회복기조는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4.0%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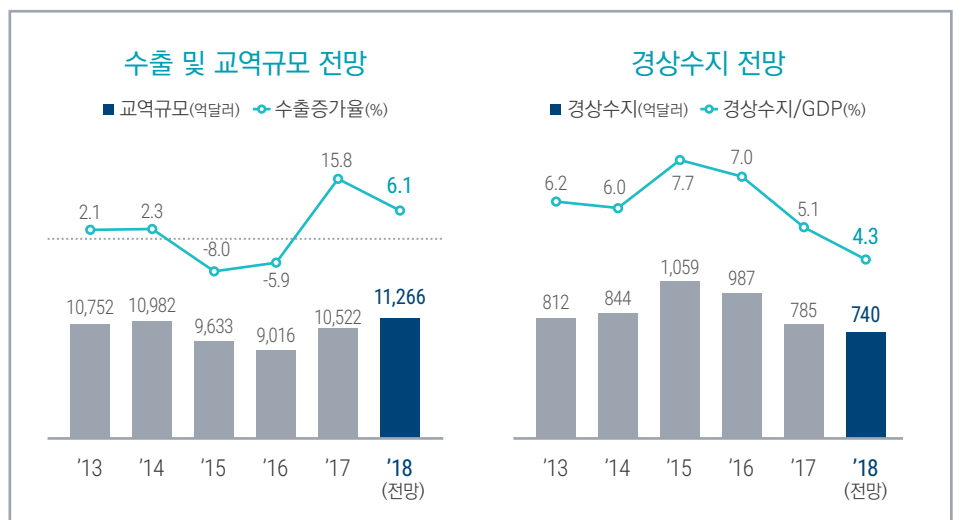
건설투자는 건축과 토목 모두 부진하며 1.1% 감소로 전환할 전망



2. 수출과 경상수지

2018년 수출(통관기준)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강화와 세계교역량 확대 등으로 6.1%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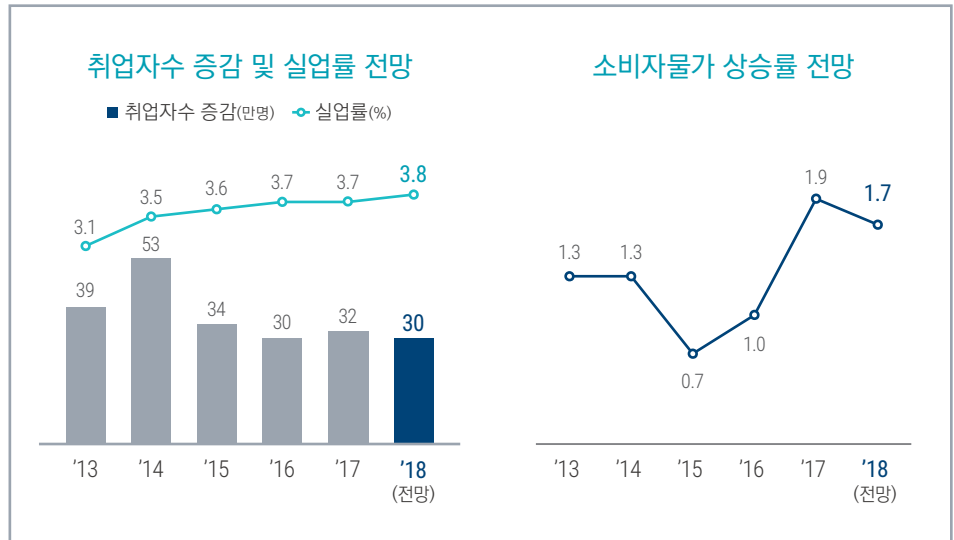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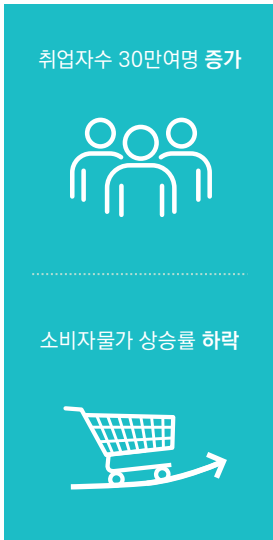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적자폭은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줄어든 연간 740억달러 전망



Ⅲ. 고용 및 물가, 원/달러 환율 전망

1. 고용 및 물가

2018년 취업자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서비스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30만여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폭 둔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등 공급측충격요인이 완화되며 전년에 비해 낮은 1.7% 상승 전망



2. 원/달러 환율

2018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풍부한 외화유동성, 대외건전성 제고 등으로 지난해(1,130원)보다 하락한 연평균 1,058원 수준을 보일 전망

